

◇ 흉부식도암환자에서 식도절제후 경부문합 및 흉부문합간의 문합부 합병증에 관한 비교 연구

김재우, 정성운, 이형렬, 김종원, 이성광, 정황규

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_ 흉부식도암환자에서 식도재건술은 개흉에 의한 식도절제후 문합의 위치에 따라 흉부문합법과 경부문합법이 있다. 양 문합법에 따른 술후 문합부 누출 등 심각한 합병증과 중장기적으로 종양의 국소 재발 및 문합부 협착[양성] 등의 발생을 등을 서로 비교하여 각 문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다 이상적 술식방법을 추구함에 목적이 있다.

방법 : _ 최근 10년간 흉부식도암으로 진단되어 개흉에 의한 식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36명[남:여=34:2]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 중 20명[NA군]은 좌측 경부절개에 의한 경부문합을 시행하였고 16명[CA군]은 흉부문합을 시행하였다. 대용 장기로는 NA군은 85%에서 위장, CA군은 전례에서 위장을 사용하였다. NA군중 11례는 후흉골로, 9례는 후중격로를 채택하였고 봉합방법은 NA군은 8례에서 수기봉합, 12례에서 staple봉합, 그리고 CA군은 3례에서 수기봉합, 13례에서 staple봉합을 각각 시행하였다. Staple봉합시 사용된 staple의 크기는 25mm[12례] 혹은 28mm[13례]였다.

결과 : _ 종양의 근위부 절제연은 NA군 8.9cm, CA군 5.8cm였다. 문합부 누출은 5례[13.9%]에서 나타났는데 NA군 3례[15%], CA군 2례[12.5%]였고 수기봉합시 3례[27%], staple봉합시 2례[8%] 발생하였으며 이중 2명은 사망하였다. 술후 생존한 33명의 환자에서 생존기간중 종양의 국소재발은 CA군 1례[5.2%], NA군 4례[28.6%]에서 발생하였다. NA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21.9 ± 2.8 개월이었으며, CA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14.7 ± 2.4 개월이었다[p<0.05]. 문합부협착에 의한 연하장애는 생존한 33명중 10명[31.3%]에서 나타났는데 NA군 7례[36.8%]CA군 3례[21.4%]에서 그리고 수기봉합시 4례[40%], staple봉합시 6례[26.1%] 발생하였다. Staple크기별로 볼 때 25mm사용후 5례[50%], 28mm사용후 1례[7.7%]에서 발생하였고 문합부 누출환자 5명중 생존한 3명 모두 협착으로 진행되었다.

결론 : _ 흉부식도암환자에서 경부문합은 흉부문합에 비해 보다 많은 근위부 절제연을 얻을 수 있었고 종양의 국소재발이 적었다. 흉부문합후 문합부 누출은 술후 사망과 직접 관련되었으나 경부문합은 그렇지 않았다. 수술수기상 후흉골로를 채택할 때 경부에서도 staple봉합을 간편히 시행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술후 31.3%에서 연하장애를 호소하여 협착부의 확장이 필요하였고, 문합부 누출[특히 수기봉합후], 경부문합, 그리고 작은 크기[25mm]의 staple봉합이 식도협착의 관련요인으로 사료되었다.